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6

“부담에서 존중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열기

아래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여자 분의 고민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친정 부모님에게(100만원) 시댁에는 한 달에 20-50만원 용돈을 드려야 하구요....

거기에 십일조도 냅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용자며 각종 용자만 한달에 200가량을 갚습니다. 신랑과 둘이 버니까 돈은 좀 벌지만 나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고, 부모에게 도움 받아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이렇게 새는 돈이 많아서야 나는 언제 돈을 모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1.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십일조를 우선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부모를 챙기던데, 반대로 십일조 드릴 돈을 우선 부모에게 드리고, 십일조는 부모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미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1-2년 동안만 십일조 드릴 돈을 부모님께 드리면 우선은 마음에 짐 하나는 덜을 듯 한데....

2. 만약 돈이 정말 쪼들린다면 부모님 생활비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십일조가 먼저인가요?

☞ 만약 위의 여자 분이 당신에게 위와 같은 문의를 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눔

1. 아래 내용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부모님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나에게 있어 부모님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부모님과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부모님이 가장 힘이 되어 주셨을 때?

 부모님을 보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당신에게 있어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가복음 7:1-13

- 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 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 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

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 하리라 하였거늘

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각각 그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2-9절)

바리새인들의 주장(2-5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주장(6-9절)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 10-13절에서 소개한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도는 좋은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을까요? 이 전통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중요한 책임(예: 가족, 이웃)을 소홀히 여긴 적이 있었는지 나눠보세요.

☞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 아래 내가 정당화했던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왜 율법보다 '사랑'과 '정의'를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예수님이 마가복음 7:1-13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십계명 제6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결단

조엔 치치스터 라는 사람은 십계명의 모든 항목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지키려 애쓰지 않고, 가장 무신경하게 여기는 계명일 것이다. 우리는 죽여야 하는 이유를 항상 만들어 낸다. 국가 수호를 위해 죽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죽이고, 강권을 발동하기 위해 죽인다.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죽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른 일부분을 죽인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숲을 유린하고, 공기를 더럽힌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당신의 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